

2015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보고서

2015 Invitation Programme
for Japanese Teachers

2015.8.25-31
대한민국

목차

I. 프로그램 소개

1. 사업 개요 / 3
2. 프로그램 내용 / 8

II. 소감 및 평가

1. 프로그램 종합평가 / 23
2. 참가자 소감 및 평가 / 25
3. 협력기관 소감 및 평가 / 30

III. 부록

1. 참가자 명단 / 35
2. 프로그램 세부일정 / 37
3. 협력기관 정보 / 43
4. 관련기사 / 44

I. 프로그램 소개

1 사업 개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사업>

1. 사업목적

- 1) 한일 교사 간 대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양국 교육현안 이해
- 2)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이해교육(EIU)을 핵심으로 하는 유네스코 교육 이념 실행 확산
- 3) 한일 교사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 4) 한일 양국의 지속적인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

2. 추진배경

- 1) 2000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 나카소네 히로후미 장관 방한 시 당시 문용린 교육부장관에게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양국 교사 교류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양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일본에서는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2001년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에 한국교사 50명을 초청하였고, 2011년부터 유엔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신탁기금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2003년에 100명, 2007년에 160명, 2009년에 150명으로 초청 인원을 늘려 2014년까지 한국교직원 1,669명이 방일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 3) 한국에서는 2005년에 국고 지원을 받아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으로 일본교사 20명을 초청하였고, 2008년에 54명, 2013년 50명으로 초청 인원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일본교직원 442명이 방한하였다.
- 4) 향후 한일교직원교류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비롯한 미래 세대 교육 현안에 대한 양국 교직원의 진정한 대화의 창구를 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일교직원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교사대화 참가 실적>

1. 한국교직원 일본방문(2001-2015년)

총 1,790명 초청/실제 1,767명 방일(23명 취소)

연도	기간	단장	교육부	총인원	방문지(도쿄, 오사카 포함)
2001	2.5-24 (3 주)	남상문	남상문	50 명	히로시마, 사가, 가고시마
2002	1.24-2.5 (2 주)	강대근	정봉근 김영재	50 명	미에, 효고
2003	1.16-27 (2 주)	김신일	구관서 한경문	99 명 (1 명 취소)	야마구치, 돗토리, 가가와, 미야자키
2004	1.29-2.10 (2 주)	강대근	임승빈 유지완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시즈오카, 오이타, 에히메
2005	1.19-2.1 (2 주)	도재원	강학래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후쿠시마, 효고, 돗토리
2006	1.11-24 (2 주)	이돈희	여종구 이병석	9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구마모토, 시가, 돗토리
2007	1.24-2.5 (2 주)	문용린	김태훈 김동환	159 명 (1 명 취소)	홋카이도, 효고, 사이타마, 나라, 가고시마
2008	1.22-2.4 (2 주)	이삼열	강정길	158 명 (2 명 취소)	군마현, 게센누마시, 다카라즈카시, 사이타마시, 아키타현
2009	2.3-16 (2 주)	이경숙	김규태 심민철	148 명 (2 명 취소)	니시고촌(후쿠시마현), 사이타마시, 나라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2010	1.12-25 (2 주)	전택수	강구도 정민웅	149 명 (1 명 취소)	게센누마시(미야기현), 도요나카시(오사카부), 가나자와시(이시가와현), 와카야마현, 오사카부
2011	1.11-24 (2 주)	권대봉	홍성창 박혜원	149 명 (1 명 취소)	야치요시(지바현), 요사노초(교토부),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지바현, 나라시(나라현)
2012	1.11-22	박은경	권희정 최유순	148 명 (2 명 취소)	사이타마시(사이타마현), 요사노초(교토부), 게센누마시(미야기현), 오카야마시(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
2013	1.16-27	김태완	김은희 김윤정	144 명 (6 명 취소)	야치요시(지바현), 하시모토시(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가와현), 지바현, 후쿠오카현
2014	1.19-27	안양옥	이동명 이진구	118 명 (2 명 취소)	나라시(나라현), 이나기시(도쿄도), 하시모토시(와카야마현), 고마쓰시(이시가와현)
2015	1.18-26	민동석	정혜선	98 명 (2 명 취소)	야치요시(지바현), 지바현, 와카야마현

2. 일본교직원 한국방문(2005-2014년)

총 448명 초청/실제 442명 방한(6명 취소)

연도	기간	단장	문부과학성	총인원	방문지
2005	9.5-13 (8 박 9 일)	Mikami Kazuyoki (미야기 교대 교수) Tanaka Kazuaki (동경다케하야초 교감)	Asai Takashi (문부성 과장) 외 1 명	24 명	수원, 안동, 경주
2006	6.11-18 (7 박 8 일)	Kusahara Katsuhide (다쿠쇼쿠대 부총장)	Nishiyama Kazunori (문부성 국제협력정책실 인물교류전문관) 외 2 명	25 명	전주, 부여, 광주
2007	6.10-17 (7 박 8 일)	Nakasone Hirofumi (외무대신, 전.문부대신) Sagara Noriaki (교토노들담대 총장)	Tada Mayuko (전문원) 외 1 명	29 명	대전, 청주, 경주
2008	8.19-28 (9 박 10 일)	Kozawa Kimiko (동경학예대학 명예교수)	Kawakubo Yuriko 외 1 명	52 명 (2 명 취소)	인천, 수원, 창녕, 경주
2009	8.26-9.4 (9 박 10 일)	Kiso Isao (문부과학성 국제통괄관, 일본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 Tejima Toshio (고토구립시노노메 초등학교장)	Shimizu Norihiko (문부성 국제통괄관보좌) 외 1 명	53 명 (1 명 취소)	인천, 수원, 통영, 안동, 경주
2010	8.25-9.3 (9 박 10 일)	Sakaguchi Hitomi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위원, 미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Uemura Masaki (문부성 계장) 외 1 명	53 명 (1 명 취소)	안산, 시흥, 원주, 청주, 경주
2011	8.26-9.4 (9 박 10 일)	Kato Hisao (나라교육대 부학장)	Higashi Hideaki (문부성 계장) 외 1 명	53 명 (1 명 취소)	경남 (창원, 김해), 전남(순천)
2012	8.29-9.7 (9 박 10 일)	Iwamoto Wataru (문부과학성 일본유네스코국내위원회 국제교섭분석관)	Sato Keiichi (문부성 전문직) 외 1 명	53 명 (1 명 취소)	경기, 충남
2013	8.22-29 (7 박 8 일)	Abe Hirofumi (오카야마대학 부학장)	Kamoshita Yuko (문부성 계장) 외 1 명	50 명	충북, 강원
2014	8.26-9.1 (6 박 7 일)	Otsu Kazuko (홋카이도교육대학 부학장)	Mori Yusuke (문부성 계장) 외 1 명	50 명	강원, 충북

<2015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개요>

1. 기간: 2015년 8월 25일(화)-8월 31일(월)(6박 7일)
2. 장소: 서울, 부산, 2개 지역(전라남도, 경기도)
3. 후원: 대한민국 교육부, 일본 문부과학성
4. 주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엔대학,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5. 협력: 전라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6. 참가자: 일본교직원(교사, 학교장, 장학사, 문부과학성 직원 등) 50명
※ A그룹, B그룹 각각 25명 참가
7. 주요내용
 - 가. 교육 기관 방문을 통한 한국 교육현안 및 유네스코학교 이해
 - 나.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교 및 관련 기관, 현장 방문
 - 다. 한국 학생·교사와의 교류, 일본문화소개 수업
 - 라. 가정방문, 문화유적지 탐방
8. 전체일정(안)
 - 가. 항공일정
 - 8월 25일(화) KE 708 나리타-인천 09:25 - 11:50
 - 8월 31일(월) KE 715 부산-나리타 09:30 - 11:35
 - KE 731 부산-칸사이 09:00 - 10:25
 - KE 783 부산-후쿠오카 09:15 - 11:35

나. 프로그램 일정

날짜	일차/ 장소	일정	세부내용
8.25(화)	1일차/ 서울	서울 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 - 서울(인천) ◆ 호텔 체크인 (세종호텔)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및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세종호텔) ◆ 강의 - 한국 교육 현황 등
8.26(수)	2일차/ 서울	ASPnet 학교 방문 (용강중/ 서울사대부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관, 문화교류 수업 실시, 학생·교사 간담회 ◆ 점심
		자유시간	
8.27(목)	3일차/ 지역	지역이동	(이비스 엠버서더 수원/유심천 스포츠 관광 호텔)
		교육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현황 소개(교육감 예방) ◆ 특색사업/교육방향 소개 ◆ 질의응답
8.28(금)	4일차/ 지역	ASPnet 학교 방문 (순천왕지초/안현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관, 문화교류 수업 실시, 학생·교사 간담회 ◆ 점심
		ASPnet 학교 방문 (순천팔마고/ 경기자동차과학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관, 문화교류 수업 실시, 학생·교사 간담회,
		지역환영만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한국교직원, 방문학교 및 기관 관계자 참가
8.29(토)	5일차/ 지역	문화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유적지 방문
		그룹평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참가자 간 방한 종합평가
		가정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12개 내외 가정 대상(방일교직원, 지역 교사 및 학생 가정) ◆ 4시간 내외 방문, 저녁식사
8.30(일)	6일차/ 부산	부산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 호텔 도착 (해운대 그랜드 호텔)
		보고회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직원 참가
8.31(월)	7일차/ 부산	귀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해(인천) - 나리타(도쿄)/간사이(오사카)/후쿠오카

2 프로그램 내용

8월 25일 (화)

1.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식



일본교직원 방한단 50인은 한국방문 프로그램 첫 일정으로 유네스코회관 11층에서 개최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식에 참석했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자료 배부와 함께 6박 7일 간의 일정 설명이 이루어졌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승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보가 환영 인사로 일본교직원들을 맞이하였으며, 그 후 히구치 도요타카 방한단장(고마에제1중학교장)이 답사로 환영에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2. 한국 교육 강의



한국교육개발원의 윤종혁 박사로부터 '최근 한국의 교육 정책'이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등의 추이로 한국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두 가지 정책 -'창의·인성 모델학교'와 '자유학기제'- 을 소개했다. 일본 교직원들은 과거 일본의 '유토리 교육'

과 비슷한 자유학기제 도입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특히,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및 학습량의 변화 등 교육과정 편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한,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교직원들의 역량강화와 그에 따른 업무 부담 등 같은 교직원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많았다. 윤종혁 박사는 일본 교직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적극적



으로 답변을 해주어 일본교직원들로부터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3. 한국 ASPnet 소개: ESD와 GCED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우진 교육팀장이 한국의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학교의 기본 이념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학교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방한단 중에는 유네스코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과 ESD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한국의 유네스코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8월 26일 (수)

· A 그룹

1. 용강중학교 방문



스노하라 아키오 그룹리더(나가노현교육청)를 포함한 25명의 A 그룹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강중학교를 방문했다. 용강중학교에서는 글로벌 리더반 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애교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교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일본교직원들은 매우 감동했다. 그 후 이어진 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에서 일본교직원들과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다. 학생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일본 교직원들은 용강중학교의 학교 시설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학생 일인당 노트북을 한대씩 배정하여 진행되는 수업을 견학하면서, 교내 ICT 설비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다. 또한, 교사 간담회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직원들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지도가 양 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특히, 용강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유공교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교직원들은 강연에서 들었던 자유학기제를 떠올리며 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 B 그룹

1.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방문

히구치 도요타카 단장과 가와사키 다카시 그룹리더(고마에제6초등학교장)를 포함한 25명의 B 그룹은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잡은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를 방문했다. 교문 안으로 들어서자 운동장에 있던 학생들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 학교 전체가 방문단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과목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일본인 교사들은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교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교과교실에서는 교실을 꼼꼼히 둘러보고, 수업이 없는 교실에서는 교사와 교수방법과 학습자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점심식사 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소그룹을 이루어 급식을 먹고, 학교를 둘러보면서 교류를 했다. 학생들은 일본교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가꾸는 교내 텃밭을 소개하고, 문화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매 달 하나의 국가를 테마로 하여 직접 제작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었다. 교사간담회 시간에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의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하였으나, 학교견학 시간이 길어져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쉬워했다.



8월 27일 (목)

·A 그룹

1. 전라남도교육청 방문

A 그룹의 전라남도 일정은 목포시에 위치한 전라남도교육청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김재인 교육국장, 나동주 교육진흥과장을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의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단을 환영해주었다. 최경화 장학사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5대 시책'을

중심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는데, 일본교직원들은 다섯 가지 분야 중에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교원들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교원 상훈제도 등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다. 또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사 배치 정책을 매우 부러워하며, 교원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매우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했다.



2.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방문



ICT 설비에 관심이 많은 일본교직원들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옆에 자리잡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했다. 이현희 교육정보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정보원을 둘러본 일본교직원들은 교육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같은 교육행정의 편의를 위해 갖춰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관제실의 설비와 컴퓨터연수실의 시설 등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선진적인 하드웨어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본교직원들이 영어교육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ICT활용의 전문기관인 만큼 방문 시간 내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원 내의 다양한 시설을 사진으로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B 그룹

1.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방문

경기도지역을 방문하는 B 그룹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새로운 청사건물을 둘러본 방문단원들은 1층에 자리잡은 장애학생들의 직업교육의 장소로도 이용되는 카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층으로 이동한 일본교직원들을 이석길 교육2국장이 맞이해주었으며, 광원규 장학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교



육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일본교직원들은 학생 중심의 교육, 인성 중심의 교육을 내세운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에 크게 공감하면서, 현장에서의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또한, 일본의 현 교육정책과 비교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정책에 대한 조언과 함께, 혁신교육정책에서 배워야 할 점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였다.

2. 지역문화탐방 - 국립수목원 견학



파주 DMZ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출입이 통제되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국립수목원으로 변경했다. 일본교직원들은 DMZ에 방문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국립수목원의 규모와 짙은 녹음에 감탄했다. 국립수목원의 김성희 연구원으로부터 국립수목원이 '인간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함께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일본어가 능통한 숲 해설가와 함께 약한 시간 가량 국립수목원 내의 산림박물관과 그 주변 지역을 둘러보았다. 국립수목원의 역사, 생태계, 구성 등을 아우르는 숲 해설가의 설명에 일본교직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수목 품종을 비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교직원들은 국립수목원 내의 체험학습장에서 천연 염색을 이용하여 손수건을 만들었다. 일본교직원들은 천연 염색 재료 및 구매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하였으며, 개개인의 특성이 묻어나는 손수건을 만들고 매우 기뻐했다.



8월 28일 (금)

·A 그룹

1. 순천왕지초등학교 방문

왕지초등학교를 방문한 일본교직원들을 가장 처음 맞이해 준 것은 왕지초등학교와 초등학교와 함께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준비한 전통공연이었다. 한복을 입고 노래와 율동, 장구연주로 일본교직원들을 환영하는 모습에 방문단은 모두 기뻐했다. 왕지초

등학교의 학교소개 중 일본교직원들은 학생들의 협동심과 자발성을 키워주는 왕지초등학교의 다양한 유네스코 학교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과 자발성을 키워줄 수 있는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개최되었던 간담회 때에도 한 일 교사 간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 학교탐방 시간에는 각 교실을 다니면서 수업을 참관하였는데, 일본교직원들은 학생들의 교과서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컴퓨터 및 대형 텔레비전을 활용한 수업 모습을 촬영하는 등 한국 학교의 수업 교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왕지초등학교에서는 일본교직원들이 직접 수업을 하는 시간도 있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2반씩, 총 12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일본교직원들은 일본의 전통의상을 소개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일본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팔마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일본문화수업의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일본교직원들이 아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2. 순천팔마고등학교 방문



팔마고등학교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유네스코 동아리의 활동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이었다. 일본교직원들은 활동복을 입고 적극적으로 방문단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팔마고등학교를 견학할 때, 일본교직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은 외국어교육에 대한 내용이었다.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교과교실(English Center)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수업 진행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한, 일본교직원들은 그 동안 팔마고등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기록한 사진 등을 전시한 '유네스코 역사관'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이번 방문단을 맞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손수 만들고, 일본어로 작성한 정성 어린 전시물들을 보면서 일본교직원들은 매우 감동했다. 팔마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먼저 일본교직원 방문단의 일원인 문부과학성 니시카와 사무관으로부터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진흥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들의 생활과 고민, 대학입시, 교과과정 등에 대해 양국 교사와 학생들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3. 환영만찬

순천시에 있는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개최한 전라남도지역 환영만찬에는 순천교육지원청 신경수 교육장, 김성렬 왕지초등학교장, 허순행 팔마고등학교장을 비롯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방문학교의 선생님, 학부모와 순천문화원 이사,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부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환영만찬 시간 동안 일본교직원들과 한국인 참가자들은 기관 방문 때 못 다 나눈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나갔다. 또한, 왕지초등학교 교사 9명이 합창을 선보이고, 일본교직원들도 한국어로 준비한 노래를 불러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 B 그룹

1. 안현초등학교 방문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안현초등학교 시청각실에 들어서자 교사들과 한복을 곱게 입은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었다. 그 후 학생들이 사물놀이와 오카리나 공연을 선보이고, 어머니가 일본인 학생이 일본어로 환영인사를 하는 등 학생들의 환영 공연에 일본교직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하였다. 일본교직원들은 안현초등학교의 다양한 수업을 참

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토론수업, 통합교과수업 등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작품이 학교에 전시되어 있거나, 학부모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안현초등학교의 학

부모들은 방문 당일에도 통역 자원봉사자로 학교를 찾아와 일본교직원들의 수업을 도왔는데, 방문단들은 학부모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안현초등학교의 학교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문화수업에서는 일본의 전통의상,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교류했다. 일본교직원들을 맞이해준 사물놀이 공연을 선보인 반에서는 일본문화수업 후 학생들이 일본교사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쳐주어 문화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교사간담회 시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유네스코학교 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일반 교사들과는 별도로 특수학급교사들은 자체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한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방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한 일본교직원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교사와 학생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다. 학생들은 일본교직원들이 교내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동행하며 일본어로 자신들의 학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방문단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수업 참관은 학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습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본교직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들의 노력과 전문성에 감탄했다. 간담회 시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직업교육과 진로지도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간담회에는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참여하였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여 습득한 일본어로 자신의 꿈을 말하는 모습에 일본교직원들은 큰 박수를 보내주



었다. 또한, 향후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 일본교직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관계자로부터 이번 프로그램의 인연을 바탕으로 매년 진행하는 해외연수 방문지를 올 해는 일본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다.

3. 환영만찬



참가자들의 숙소이기도 한 수원시의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경기지역 환영만찬이 개최되었다. 경기지역 환영만찬에는 경기도교육청 문병선 부교육감, 안현초등학교 김선혜 교장 등 경기도교육청과 안현초등학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교사 및 가정방문 호스트패밀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교직원들과 한국교직원들은 양국의 생활과 교육 환경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혁신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일본 교육학자인 사토 마나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 또한 많은 테이블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만찬 중간에 안현초등학교 교사의 오키나와 연주와 일본교직원들의 합창이 더해져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8월 29일 (토)

· A 그룹

1. 지역문화탐방 - 순천만정원, 송광사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순천만정원을 방문했다. 순천만정원에 도착한 일본교직원들은 먼저 관람차를 탑승하여 20분 가량 순천만정원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뒤, 개별적으로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순천만정원의 모습에 일본교직원들은 매우 감탄했다. 또한, 순천만정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목들과 정원 내부에

마련된 씨드뱅크를 보면서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 지역문화탐방 시간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팔마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안내 역할을 자처하여 동행했다는 것에 있다. 팔마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일본교직원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었고, 일본교직원들은 그 모습에서 지역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28일에 팔마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갔다. 팔마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두 번째 지역문화탐방지인 송광사에도 동행했다. 송광사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교직원들은 일본과 비슷하지만 다른 한국의 불교문화와 예술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순천만정원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송광사에서의 시간이 줄어들어 아쉬워했다.



2. 가정방문

왕지초등학교와 팔마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가정방문의 호스트 패밀리를 맡아주었다. 일본교직원들은 입을 모아 호스트 패밀리의 환대에 매우 감동했다고 했다. 또한, 팔마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전 중에 함께 순천만정원과 송광사를 둘러본 학생들도 있어 더욱 친근감 있게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 B 그룹

1. 지역문화탐방 - 수원화성 견학

경기도지역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수원화성을 견학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교직원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시간 정도 성벽 주변을 따라 수원화성을 관람했다. 일본교직원들 중에는 한국의 역사드라마 중 정조가 주인공 드라마를 본 사람도 있어, 수원화성에 담긴 정조의 정치적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도 했다. 수원화성 관람 후에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관람 및 잠깐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화성행궁으로 이동했다. 화성행궁에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해주어 수원과 화성행궁에 대한 방문단들의 이해를 높여주었다. 화성행궁에서는 약 30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방문단들은 문화해설사에게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화성행궁에서 진행하는 전통문화체험에 참여하는 등 각각의 관심사에 맞춰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 가정방문

안현초등학교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가정방문의 호스트 패밀리를 맡아주었다. 안현초등학교의 경우 일본어가 능통한 가정들이 많아 일본교직원들은 한국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반면, 일본어가 통하지 않은 가정을 방문한 교직원들은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하려는 의지와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8월 30일 (일)

1. 보고회 및 폐회식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보고회 및 폐회식에는 일본교직원들이 방문하였던 경기지역과 전남지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유네스코학교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먼저 전남지역을 방문하였던 A 그룹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기대감,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 참가 성과 및 과제, 향후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의 순서로 발표했다. A 그룹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한국의 인식에 큰 감명을 받은 듯 했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과 교육현장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남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또한, A 그룹은 향후 한국 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연구를 지속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이번 프로그램에서 느낀 것들 것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B 그룹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기대감,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과 프로그램에서 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다. B 그룹은 문화, 교육제도, 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같다고 말하며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기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 또한,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성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 교육의 변화에 동감하면서, 이 인연을 지속해나가면서 서로



의 교육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는 말도 전했다. 두 그룹의 발표가 끝난 뒤, 주최 단체 관계자들의 인사말과 선물교환으로 2105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은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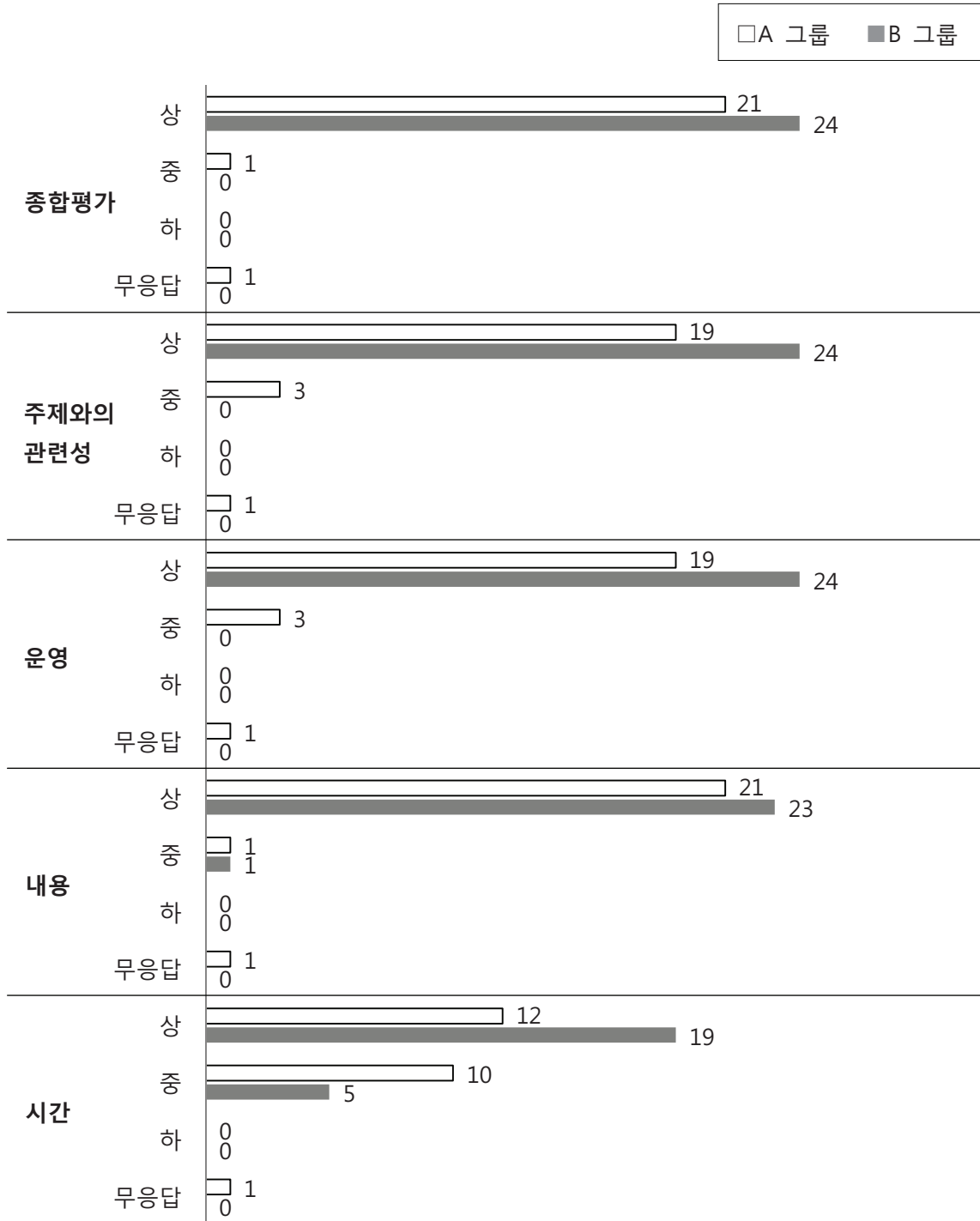
Ⅱ. 소감 및 평가

1 프로그램 종합평가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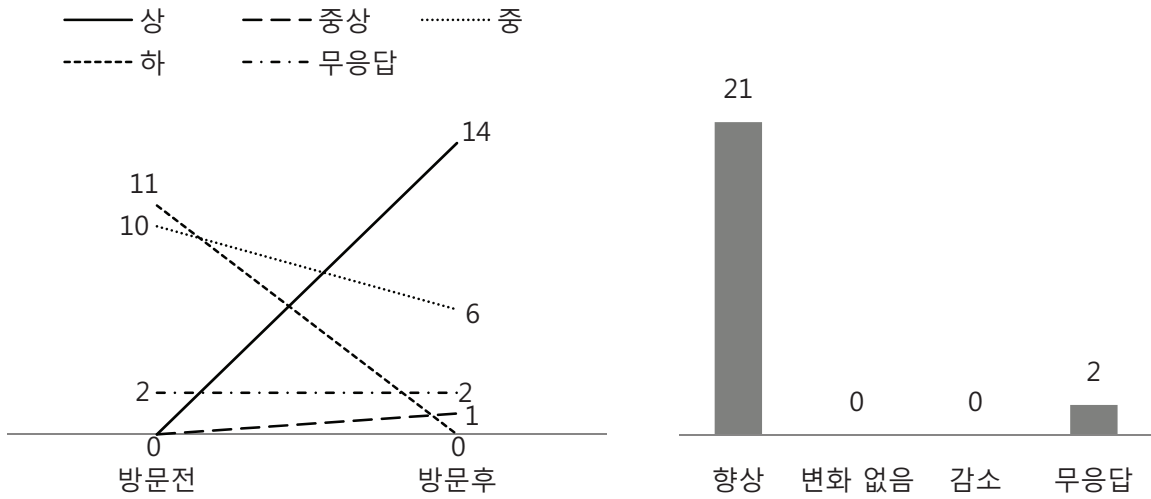
* A 그룹 : 전체 25명 중 23명 응답

B 그룹 : 전체 25명 중 24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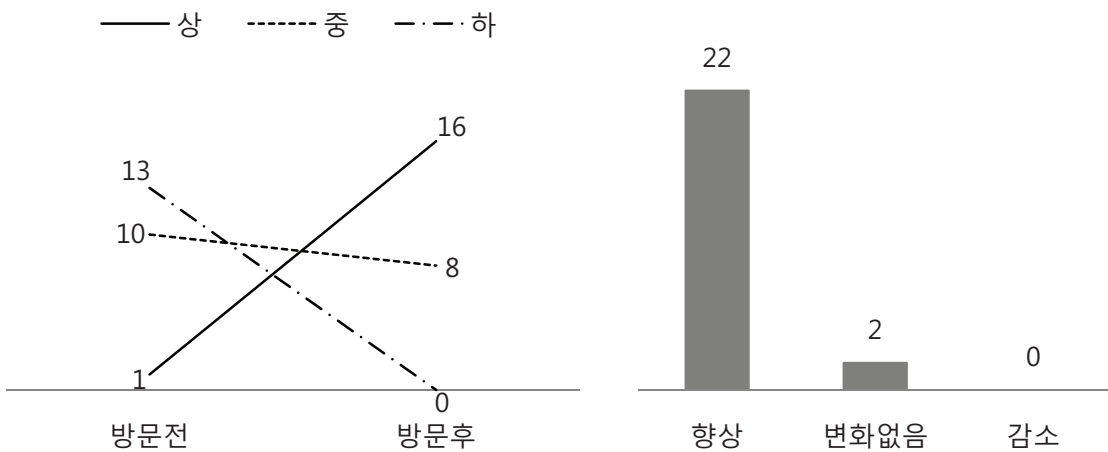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도 - A 그룹 >

* 전체 25명 중 23명 응답



<한국교육에 대한 이해도 - B 그룹 >

* 전체 25명 중 24명 응답



2 참가자 소감 및 평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의견>

- 일주일 간의 매우 충실한 프로그램이었다. 학교방문, 교육청방문, 가정방문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 국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었다. (A-03 하라 아야노)
- ESD, GCED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가자 중에는 앞으로 ESD와 GCED를 시도해보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향후 지도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05 호소야 순타로)
- 초, 중, 고, 교육청 등 폭넓게 견학할 수 있어서 한국의 교육현장을 다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들과 직접 의견을 나눈 것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귀중한 기회였다. (A-11 나카가와 도모코)
-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좋았다.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같은 아시아인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용면에서도 초, 중, 고 교육현장의 실제모습, 교육청의 행정, 가정 방문 등 세 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A-17 다카하시 마쓰오)
- 매우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연수라고 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을 만든 기회였기 때문에 가슴 속 깊이 남는 경험이었다. '강의', '학교 시찰', '역사와의 만남'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잘 잡힌 프로그램이었다. (B-14 미타무라 쓰요시)
- 한국의 선진적인 ESD,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배우고, 함께 배우면서,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크게 느꼈다.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 교원들이 한일 관계의 다리라는 역할을 짊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느꼈다. (B-18 사사키 데쓰야)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의견>

1. 강의

- 한국의 '자유학기제'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체험활동 및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통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늘어나, 자기자신을 되돌

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방과후 활동은 있으나, 동아리활동(부활동)이 없이 수험공부에만 비중을 두고 있는 점 등 일본과의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 다른 내용도 참고가 되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A-03 하라 아야노)

· 첫 날, 유네스코홀에서 진행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윤종혁 박사님의 '최신 한국교육정책'이 인상 깊었다. 학과시험 중시에 따른 '1점 차 경쟁'에서의 탈피는 일본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자유학기제'를 필두로 한 한국의 시도가 흥미로웠다. (A-16 다가시라 겐타로)

· 유네스코회관에서 진행된 강의에서는 유네스코의 활동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한국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먼저 고등학교 입시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다. 그러나 대학입시 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원의 의존도 및 가정의 부담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단, 한국이 목표하고 있는 교육방침에는 매우 공감했다. (B-05 도시로 마사미치)

3. 기관방문

· 실제로 한국 학교를 방문하여, 사전에 기대하고 있었던 ICT교육에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매우 큰 공부가 되었다. 본교에서도 ICT를 사용한 수업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에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방문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의 차이점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A-06 이시다 고헤이)

· 전라남도에서의 초등학교, 고등학교 방문 시, 학교가 적극적으로 방문단을 맞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모습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견학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A-09 미야타 사토에)

· 이번에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들은 혁신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다.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의 혁신!' 본교에서도 '수업의 주역은 아이, 준비의 주역은 교사'라는 말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더욱 인상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는 교사들은 치열한 경쟁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 혁신교육의 확산 정도에 대해 들어보고 싶었다. (B-08 이케다 야스토)

· 다양한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어느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적극성에 놀랐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는 것을 배웠다.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현장의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목표 및 수업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에너지를 느꼈다. 교육청에서의 질의응답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B-13 마키타 마사에)

· 수업을 하기 전까지 가장 불안했던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으나, 나라, 언어, 문화의 벽을 아이들은 금방 무너뜨렸다. 오히려 '벽'은 내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벽이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느꼈다. (B-10 가토 겐지로)

4. 문화탐방

· 순천시를 대표하는 명소, 유적을 견학할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 또한, 팔마고등학교 학생들이 동행해주어 한일교류라는 점에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단, 송광사의 박물관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 (A-16 다가시라 겐타로)

· 처음에 방문할 곳이 많이 걷는 곳이라고 들었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실제로 가보니 매우 아름다운 한국 전통의 정원과 사찰이었다. 또한, 팔마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기획은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A-20 와다 게이코)

· 파주DMZ를 견학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다. 일정이 변경되어 간 국립수목원 견학은 한국 자연의 역사적 의의 및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다. 수원화성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알고 나니 더 흥미가 생기는 곳이었다. 성벽의 구조 및 당시의 외적을 막기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 흔적이 보여 매우 훌륭한 관광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B-05 도시로 마사미치)

· DMZ에 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취소가 되었기에 더욱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수목원에서 일본 통치시대의 상처를 처음으로 알았다. 얇은 역사인식을 통감했다. (B-22 야마모토 미즈에)

5. 가정방문

· 직접 만드신 요리로 저녁을 먹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의 가정생활 및 식문화 등을 알고, 교류를 깊이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08 가와사키 게이코)

· 주말의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교류해 준 가정에게 감사한다.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주

셔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다.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교류 할 시간이 많아서 유카타를 입혀주고, 한복을 입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A-21 야마지 요코)

· 통역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언어의 벽이 있어 주저하는 것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 감동했다. 최선을 다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강해져, 어느 순간 긴장도 풀렸다. 매우 즐거웠다. (B-03 아오시카 요시히로)

· 가정방문을 받아주신 가정은 매우 훌륭하게 대접해주었다. 아이도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과 같은 4학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교육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가정방문 집의 아이는 영어일기대회에서 수상하였고, 회화도 가능했다. 일본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그 아이가 일본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어주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꼭 답장을 써주고 싶다. (B-07 호사코 고지)

<향후 활용 및 발전 계획>

· 한국의 선진 ICT교육을 조금씩 현 내의 학교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싶다. (A-01 스노하라 아키오)

· 학교방문을 통해 국가는 다르더라도 교육 및 아이들에 대한 정열은 같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젊은 세대가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국경을 넘어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 그들의 마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할 일 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생들이 이메일로 의견교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꼭 해보고 싶다. (A-17 다카하시 마쓰오)

· 유네스코학교 담당자에게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울 용강중학교의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A-19 우쓰미 마유미)

· 안현초등학교와 회화(일본에서는 그림편지)를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3학기에 전시회가 있으므로, 안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 (B-02 가와사키 다카시)

· 특별지원학급(특수학급) 교사와 교재교류, 교환수업 학급과의 편지(감상, 질문 등) 교류를 하고자 한다. (B-12 마치다 나오미)

·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학교 전체, 학년, 학급 등)에서 진행하면 좋을지는 학교에 돌아간 뒤 교내에서 조정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교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학습과정과 링크시켜서 함께 배우는 것을 해보고 싶다. 또한, 서로의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를 스카이프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B-18 사사키 데쓰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

· 학교방문 시 의견교환시간에 양국의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질문에는 방문 전에 문서로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A-08 가와사키 게이코)

· 한국 선생님들과의 교류(그룹 토론 등)를 조금 더 하고 싶었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수업을 생각하거나, 상대학교를 찾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A-13 나라후 노부코)

· 그룹 평가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또한, 하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갖는다면 성과 및 과제를 공유할 수 있어, 전체적인 학습성과가 높아질 것이라 본다. (B-18 사사키 데쓰야)

3 협력기관 소감 및 평가

<A 그룹>

1. 용강중학교

- 한-일 교사간의 교류를 통해 우리 교육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 한-일 학생 교류로 발전을 모색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질의응답시간이나 식사시간 등 틈틈이 교육 과정이나 기타 세세한 프로그램 등에 관해 질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인상적이었다. 또한 학생들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싶어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한-일 학교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간담회에 참가한 학생들도 가까운 일본의 교육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2. 전라남도교육청

- 모든 교실에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지 않고 지급된 일부 컴퓨터도 콘텐츠가 없어서 교사들이 사용하기 매우 불편하다는 점, 우리에게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급식실이 일본에서는 거의 없고 그래서 모든 급식을 교실에서 먹는다는 점 등 놀라운 이야기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일본 경제규모의 1/3를 조금 넘고, 교육재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로 선진국인 일본조차 탐내는 최고의 교육환경을 구축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은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일본교직원 방문단을 통해 절실히 느꼈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교류 기회가 적은 전남 지역 학교와 학생들에게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순천 왕지초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본교직원들과 같이 진행한 수업은 우리 학생들이나 일본교직원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3. 전라남도교육정보연구원

- 한국의 정보통신교육의 발달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지속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도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4. 순천왕지초등학교

-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국문화 관련 공연을 통해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맛보았던 좋은 기회였으며, 교원들도 공연 준비로 교원들이 함께하는 동안 학교 구성원으로서 돈독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교 방문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본교 교원들의 만족감이 매우 높아,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행사 진행 중에 필요한 내용이 한번에 조사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할 수밖에 없던 점이 조금 아쉬웠다.

5. 순천팔마고등학교

- 유네스코학교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이었다. 그리고 평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을 그대로 일본인 선생님들께 공개하였는데 수업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아 수업을 진행하는 본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2015년 8월 29일에 진행된 일본교직원들의 순천 근교 문화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순천팔마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교직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도, 일본인 선생님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형태를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 문화탐방에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면 좋겠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네스코 학교끼리 교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본교를 방문한 일본인 선생님들에게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 서로 소식을 주고 받고 있는 데 학교끼리의 정식적인 교류까지 요청하는 선생님들도 있었다. 여러 가지 행적적인 문제로 확답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끼리 지속적으로 교류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의 우의를 다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 B 그룹 >

1.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 본교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 연주로 환영식을 하고,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 시범을 통해 패기 있는 한국 학생들의 기상을 널리 알려 문화 교류로서의 장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두 달여 동안 연습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자부심이 높아져서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일본 방문단의 참관이 있었던 학급 학생들도 반가움과 호기심을 표현했으며, 일본 방문단에게 본교 학생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학생들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기대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 한국교사와의 대화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신 일본 선생님들을 보면서 본교 선생님들도 많은 감명을 받았다. 학생들의 수업 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준비해 주신 기관장 선물도 한일간의 문화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교사와의 대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웠다는 본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았다. 학교 소개 등의 일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통역사가 세 분 정도 지원된다면 분과 별로 나누어서 학생 생활 관련, 학교 교육 관련, 교과 운영 관련 등으로 대화를 하면 프로그램의 취지에 더 맞을 것 같다.

2. 안현초등학교

- 4, 5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선생님들께서 일본 문화수업을 진행하셨는데, 학습준비물도 다양했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수업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단장님과 맨발로 뛰면서 체육 수업을 해주신 특수교사 선생님, 유카타를 입으시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주신 선생님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수업해 주셔서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 후 전통놀이 기구, 일본 선생님이 어릴 때 입었던 유카타 옷, 일본 가면 등 추억에 남을 물건들은 본교 도서실 “유네스코관”에 전시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했다.
- 통역사 배치를 넉넉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는데,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불편하였고, 아쉬움이 많았다.
- 학교 방문 후 사후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다녀간 후에 서로의 모습을 사진이나 편지로 공유하거나, 영상편지를 남기는 등의 활동이 추가로 진행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다.

3.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 일본교직원 방문은 학교나 학생에게 모두 뜻 깊은 프로그램이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개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타국인을 만나 문화교류를 하기 어렵고, 같은 직군을 갖은 분을 만나기란 더욱 쉽지 않은데 일본의 교직원 분들을 만나 양국의 교육문제와 교사로서 힘든 점, 학교의 특징들을 교류하며 스스로도 많은 생각이 들었으며, 일본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웃국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다. 학생들 또한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동기유발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교육과정 번역 및 교직원 맞이 등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Ⅲ. 부록

1 참가자 명단

<A 그룹>

그룹리더 : A-01 스노하라 아키오

No.	NAME		SEX (M/F)	Organization	Title/Post	Subject	ASPnet
A-01	春原 秋夫	스노하라 아키오	M	長野県教育委員会教学指導課 나가노현교육청 교학지도과	課長補佐 과장보좌	-	申請中 신청중
A-02	新子 慶行	아타라시 요시유키	M	奈良市立都祁小学校 나라시립 쓰게초등학교	教諭 교사	-	-
A-03	原 彩乃	하라 아야노	F	さいたま市立春野小学校 사이타마시립 하루노초등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A-04	針谷 健太	하리가야 겐타	M	自由学園男子部中等科・高等科 자유학원남자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A-05	細谷 俊太郎	호소야 슌타로	M	狛江市教育委員会 고마에시교육청	統括指導主事 장학관	-	-
A-06	石田 恒平	이시다 고헤이	M	聖徳学園中学・高等学校 소토쿠학원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美術 미술	-
A-07	地引 千尋	지비키 지히로	F	千葉県立千葉東高等学校 지바현립 지바히가시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A-08	川崎 恵子	가와사키 게이코	F	長崎県立諫早商業高等学校 나가사키현립 이사하야상업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A-09	宮田 里枝	미야타 사토에	F	和歌山県教育委員会 와카야마현교육청	指導主事 장학사	日本語 일본어	-
A-10	水野 鉄也	미즈노 데쓰야	M	長野県中野西高等学校 나가노현 나가노니시고등학교	教諭 교사	数学 수학	申請中 신청중
A-11	中川 とも子	나카가와 도모코	F	神奈川県立有馬高等学校 가나가와현립 아리마고등학교	教諭 교사	日本語 일본어	○
A-12	中嶋 たや	나카지마 다야	F	奈良教育大学附属中学校 나라교육대학부속중학교	教諭 교사	家政 가정	○
A-13	橋戸 暢子	나라후 노부코	F	東京大学教育学部附属中等教育学校 도쿄대학교교육학부부속중학교	主幹教諭 수석교사	家政 가정	-
A-14	野木 雅生	노기 마사오	M	八千代市立村上北小学校 야치요시립 무라카미키타초등학교	教諭 교사	社会 사회	-
A-15	淋 慎一郎	소소기 신이치로	M	狛江市立和泉小学校 고마에시립 이즈미초등학교	主任教諭 부장교사	全科目 전과목	-
A-16	田頭 賢太郎	다가시라 겐타로	M	関東国際高等学校 간토국제고등학교	教諭 교사	日本史 일본사	-
A-17	高橋 松雄	다카하시 마사오	M	白石市立白川中学校 시로이시시립 시라카와중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A-18	田中 福人	다나카 후쿠토	M	ノートルダム清心学園 清心中学校清心女子高等学校 노트르담세이신학원 세이신여자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科学 과학	○
A-19	内海 まゆみ	우쓰미 마유미	F	大田区立大森第六中学校 오타구립 오모리제6중학교	主任教諭 부장교사	日本語 일본어	○
A-20	和田 恵子	와다 게이코	F	兵庫県立北須磨高等学校 효고현립 기타스마고등학교	教諭 교사	数学 수학	○
A-21	山地 陽子	야마지 요코	F	千葉県立国分高等学校 지바현립 고쿠분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A-22	柳川 真弓	야나가와 마유미	F	熊野町立熊野第一小学校 구마노정립 구마노제1초등학교	教諭 교사	数学 수학	○
A-23	西川 太郎	니시카와 다로	M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文部科学事務官 문부과학사무관	-	-
A-24	岩佐 敬昭	이와사 다카야키	M	国際連合大学 大学院 국제연합대학 대학원	事務局長 사무국장	-	-
A-25	高松 彩乃	다카마쓰 아야노	F	グ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ACCU) 総務部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총무부	事務専門員 사무전문원	-	-

<B 그룹>

방한단장 : B-01 히구치 도요타카

그룹리더 : B-02 가와사키 다카시

No.	NAME		SEX (M/F)	Organization	Title/Post	Subject	ASPnet
B-01	樋口 豊隆	히구치 도요타카	M	狛江市立狛江第一中学校 고마에시립 고마에제1중학교	校長 교장	-	-
B-02	川崎 貴志	가와사키 다카시	M	狛江市立狛江第六小学校 고마에시립 고마에제6초등학교	校長 교장	-	-
B-03	青鹿 吉洋	아오시카 요시히로	M	恵泉女学園中学高等学校 게이센여학원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科学 과학	-
B-04	新井 真理	아라이 마리	F	横浜市立永田台小学校 요코하마시립 나가타다이초등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B-05	堂代 正道	도시로 마사미치	M	和歌山県立たちばな支援学校 와카야마현립 다치바나지원(특수)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B-06	原野 公輔	하라노 고스케	M	大牟田市立高取小学校 오무타시립 다카토리초등학교	教頭 교감	-	○
B-07	實迫 浩二	호사코 고지	M	熊野町立熊野第四小学校 구마노정립 구마노제4초등학교	教諭 교사	体育 체육	○
B-08	池田 康人	이케다 야스토	M	八千代市立西高津小学校 야치요시립 니시타카쓰초등학교	教諭 교사	体育 체육	-
B-09	神藤 恭光	진토 야스테루	M	和歌山県教育庁学校教育局立学校教育課 와카야마현교육청 학교교육국 현립학교교육과	指導主事 장학사	数学 수학	-
B-10	加藤 健次郎	가토 겐지로	M	千葉県立特別支援学校市川大野高等学園 지바현립 특별지원학교 이치카와오노고등학교	教諭 교사	進路指導 진로지도	-
B-11	小出 一也	고이데 가즈야	M	長野県飯山高等学校 나가노현 이야마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B-12	町田 直美	마치다 나ومی	F	東京都北区立滝野川小学校 도쿄도 기타구립 다키노가와초등학교	主任教諭 부장교사	特別支援学級 특수학급	-
B-13	横田 雅江	마키다 마사에	F	多摩市立愛和小学校 다마시립 아이와초등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B-14	三田村 剛	미타무라 쓰요시	M	北海道教育大学附属札幌小学校 홋카이도교육대학부속삿포로초등학교	教諭 교사	科学 과학	○
B-15	室井 明	무로이 아키라	M	長野県中野西高等学校 나가노현 나카노니시고등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申請中 신청중
B-16	大平 淑恵	오하라 요시에	F	市川市立中山小学校 이치가와시립 나카야마초등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B-17	大西 義浩	오니시 요시히로	M	大阪府立泉北高等支援学校 오사카부립 센보쿠고등지원(특수)학교	教諭 교사	社会生活 사회생활	-
B-18	佐々木 哲弥	사사키 데쓰야	M	多摩市立多摩第二小学校 다마시립 다마제2초등학교	教諭 교사	全科目 전과목	○
B-19	菅原 理恵	스가와라 리에	F	気仙沼市立面瀬小学校 게센누마시립 오모세초등학교	主幹教諭 수석교사	全科目 전과목	○
B-20	谷脇 光	다니와키 히카리	F	八千代市立大和田中学校 야치요시립 오와다중학교	教諭 교사	英語 영어	-
B-21	田之上 寿宏	다노우에 가즈히로	M	北九州市立南丘小学校 기타큐슈시립 미나미가오카초등학교	主幹教諭 수석교사	全科目 전과목	○
B-22	山本 瑞絵	야마모토 미즈에	F	立命館宇治中学校・高等学校 리스메이칸우지중고등학교	教諭 교사	日本語 일본어	-
B-23	山本 剛	야마모토 쓰요시	M	文部科学省 문부과학성	初等中等教育企画課専門官 (併) 教育公務員係長 초중등교육기획과전문관 겸 교육공무원계장	-	-
B-24	木曾 功	기소 이사오	M	グ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ACCU)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業務執行理事 이사	-	-
B-25	齋藤 盛午	사이토 세이고	M	グネスコ・アジア文化センター (ACCU) 人物交流部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인물교류부	事務専門員 사무전문원	-	-

2 프로그램 세부일정

2015. 8.25-26 Group A & B (ソウル / 서울)	
1日目 1일차	8月25日(火) 8월 25일(화)
	服装 : 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캐주얼
9:25	東京成田空港出発(KE706) / 도쿄 나리타 공항 출발(KE706)
11:50	仁川-インチョン-国際空港到着 / 인천국제공항 도착
13:00-14:00	昼食(名品館-ミョンブムカン) / 점심(명품관)
14:00	ソウルへ移動 / 서울로 이동
15:00	ホテル到着及びチェックイン(世宗-セジョン-ホテル) / 호텔 도착 및 체크인(세종호텔)
15:45-15:55	会議場へ移動(徒歩) / 회의장 이동 (도보)
16:00-16:40	プログラムオリエンテーション及び開会式(ユネスコ会館11階 ヌネスコホール)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식(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16:40-17:20	韓国の教育についての講義 / 한국교육강의
17:20-18:00	韓国のASPnet紹介 : ESDとGCED / 한국 ASPnet 소개:ESD와 GCED
18:00	休憩 / 휴식
二日目 2일차	8月26日(水) 8월 26일(수)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7:00-	朝食(ホテル2階-レストランElysee) / 조식(호텔 2층 - 레스토랑 엘리제)
9:00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9:30-13:00	[Group A] 龍江-ヨンガン-中学校訪問(ユネスコスクール)(お弁当) [Group A] 용강중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도시락) [Group B] ソウル大学校師範大学付設女子中学校(ユネスコスクール)(学校給食) [Group B]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학교급식)
13:00	ホテルへ移動 / 호텔로 이동
13:30	休憩 / 휴식

2015. 8.27-29

Group A (全羅南道/전라남도)

三日目 3일차	8月27日(木) 8월 27일(목)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7:00-	朝食(ホテル2階-レストラン「Elysee」) / 조식(호텔 2층 - 레스토랑 엘리제)
8:30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13:00-14:00	昼食及び休憩(木浦現代-モクボヒョンデ-ホテル) / 점심 및 휴식(목포현대호텔)
15:00-16:00	全羅南道教育庁訪問 / 전라남도교육청 방문
16:00-17:00	全羅南道教育研究情報院訪問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방문
18:30	ホテル到着及びチェックイン(唯心川-ユシムチョン-スポーツ観光ホテル) 호텔 도착 및 체크인(유심천스포츠관광호텔)
四日目 4일차	8月28日(金) 8월 28일(금)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7:30-9:30	朝食(ホテル別館1階-レストラン「イェダム」) / 조식(호텔별관 1층-레스토랑 예담)
9:40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10:00-13:30	順天旺之-スンチョンワンジ-小学校訪問(ユネスコスクール) (学校給食) 순천왕지초등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 (학교급식)
14:00-17:00	順天八馬-スンチョンバルマ-高等学校訪問(ユネスコスクール) 순천팔마고등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
18:00-20:00	歓迎晩餐会(順天エコグラドホテル4階-コンベンションホール) 환영만찬(순천 에코그라드호텔 4층-컨벤션홀)
20:20	ホテル到着(唯心川スポーツ観光ホテル) 호텔 도착(유심천스포츠관광호텔)
五日目 5일차	8月29日(土) 8월 29일(토)
	服装 : 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캐주얼
7:30-	朝食(ホテル別館1階-レストラン「イェダム」) / 조식(호텔별관 1층-레스토랑 예담)
8:45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9:00-10:30	順天湾庭園見学 / 순천만 정원 견학
11:10-12:10	松広寺-ソングァンサ-見学 / 송광사 견학
12:40-14:00	昼食及び休憩 / 점심 및 휴식
14:30-15:50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 (ホテル別館1階-レストラン「イェダム」) 프로그램 평가회 (호텔 별관1층 - 레스토랑 '예담')
16:00-20:00	家庭訪問 / 가정방문

2015. 8.27-29

Group B (京畿道/경기도)

三日目 8月27日(木) 3일차 8월 27일(목)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7:00-9:30	朝食(ホテル2階-レストランElysee) / 조식(호텔 2층 - 레스토랑 엘리제)
9:00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10:30-11:30	京畿道教育庁北部庁舎訪問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방문
12:00-13:00	昼食(ヨコラン、コンイラン) / 점심(연이랑 콩이랑)
13:30-16:30	国立樹木園見学 / 국립수목원 견학
18:30	ホテル到着及びチェックイン(イビス・アンバサダー・水原) 호텔 도착 및 체크인(이비스엠베서더수원)
四日目 8月28日(金) 4일차 8월 28일(금)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6:30-	朝食(ホテル2階-レストラン「Le Fontina」) / 조식(호텔2층 - 레스토랑 레 폰티나)
8:15	ホテル出発 / 호텔 출발
09:30-13:00	鞍峴-アンヒョン-小学校訪問(ユネスコスクール)(学校給食) 안현초등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학교급식)
13:30-16:00	京畿自動車科学高等学校訪問(ユネスコスクール)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방문(유네스코학교)
16:30-17:30	休憩 / 휴식
18:00-20:00	歓迎晩餐会(イビス・アンバサダー・水原6階-NICEホール) 환영만찬(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6층 - 니스홀)
五日目 8月29日(土) 5일차 8월 29일(토)	
	服装 : 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캐주얼
6:30-	朝食(ホテル2階-レストラン「Le Fontina」) / 조식(호텔2층 - 레스토랑 레 폰티나)
8:30	華城-ファソン-へ出発 / 화성으로 출발

09:00-12:00	華城見学 / 화성 견학
12:00-13:30	昼食及び休憩 (行宮亭-ヘンゴンジョン-) / 점심 및 휴식(행궁정)
13:30-14:30	鞍峴小学校へ移動 / 안현초등학교로 이동
14:30-15:50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 (鞍峴小学校図書室) 프로그램 평가회(안현초등학교 도서실)
16:00-20:00	家庭訪問 / 가정방문

2015. 8.30-31

Group A & B (釜山 / 부산)

六日目 8月30日(日)

6일차 8월 30일(일)

服装 : 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캐주얼

7:30-10:00 [Group A] 朝食 (ホテル別館1階-レストラン「イェダム」)
[Group A] 조식(호텔별관 1층-레스토랑 예담)

6:30-10:00 [Group B] 朝食 (ホテル2階-レストラン「Le Fontina」)
[Group B] 조식(호텔2층 - 레스토랑 레 폰티나)

8:00 [Group B] チェックアウト & 釜山へ移動 / 호텔 체크아웃 및 부산으로 출발

9:30 [Group A] チェックアウト & 釜山へ移動 / 호텔 체크아웃 및 부산으로 출발

12:30 ホテル到着及びチェックイン(海雲台グランドホテル)
호텔 도착(해운대그랜드호텔) 및 체크인

13:00-14:00 昼食 (海雲台グランドホテル2階-スタジオG) / 점심(해운대그랜드호텔 2층-스튜디오 G)

服装 : スーツ又はビジネス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정장 또는 세미정장

14:30-15:40 報告会及び閉会式(海雲台グランドホテル2階-スタジオG)
보고회 및 폐회식(해운대그랜드호텔 2층-스튜디오 G)

16:30-19:00 韓日国交正常化50周年記念教育交流大会及び小宴(海雲台グランドホテル2階-スカイホール)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기념 교육교류대회 및 소연 (해운대그랜드호텔2층-스카이홀)

19:00 休憩 / 휴식

七日目 8月31日(月)

7일차 8월 31일(월)

服装 : カジュアル / 당일 복장: 캐주얼

帰国準備 / 귀국 준비

6:30 チェックアウト & 金海国際空港へ移動 / 체크아웃 &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동

09:00-10:25 大阪-関西行き(KE731) / 大阪到着
오사카 간사이행 출발(KE731) / 오사카 도착

09:15-10:05 福岡行き(KE783) / 福岡到着
후쿠오카행 출발(KE783) / 후쿠오카 도착

09:30-11:35 東京-成田行き(KE715) / 東京到着
도쿄 나리타행 출발(KE715) / 도쿄 도착

3

협력기관 정보

◆ **그네스고韓國委員會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政策事業本部教育チーム / 정책사업본부 교육팀 / Division of Education, Bureau of Policy & Programmes

住所: ソウル特別市中区明洞キル(그네스고킬)26 (〒)04536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유네스코길) 26 (우) 04536

Address: 26 Myeongdong-gil(UNESCO-gil), Jung-gu, Seoul 04536, Korea

URL: <http://www.unesco.or.kr>

Tel: 82-(0)2-6958-4123, 4280 **Fax:** 82-(0)2-6958-4252

E-mail: unescoteacher@unesco.or.kr

◆ **教育部 /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国際協力官国際教育協力担当官 /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Divis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住所: 世宗特別自治市ガルメ路408政府世宗庁舎14棟教育部 (〒)339-01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우) 339-012

Address: Government Complex-Sejong, 408 Galmae-ro, Sejong 339-012, Korea

URL: <http://www.moe.go.kr>

Tel: 82-(0)2-6222-6060 **Fax:** 82-(0)44-203-6133

◆ **全羅南道教育庁 / 전라남도교육청 /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住所: 全羅南道務安郡三郷邑オジンヌリキル 10 (〒)58564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우) 58564

Address: 10, Eojinnuri-gil, Samhyang-eup, Muan-gun, Jeollanam-do, Korea, 58564

URL: <http://www.jne.go.kr/index.jne>

Tel: 82-(0)61-260-0114, 0115 **Fax:** 82-(0)61-260-0117, 0118

◆ **京畿道教育庁 / 경기도교육청 /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住所: 京畿道議政府市東一路 700 (〒)11759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 11759

Address: 1287, Hoguk-ro, Uijeongbu-si, Gyeonggi-do

URL: <http://www.goe.go.kr/index.jsp>

Tel: 82-(0)31-249-0114

4 관련기사

교육 현장 오가며 평화와 미래 위해 '열린 대화'

'한일교사대화' 일 교직원 방한 프로그램 6박 7일간 진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민동석)와 일본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유엔대학이 공동주최하는 2015년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일본 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6박7일간에 걸쳐 펼쳐졌다. 한일 교직원 교류를 통한 유네스코 교육 이념의 확산, 양국 교육 현안 이해와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한일 상대국의 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원한다.

이번에 방한한 히구치 도요타카 단장(코마에 제1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일본 교직원단 50명은 25일 서울에서 개회식을 가진 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서울(용강중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경기(안현초등학교,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전남(순천왕지초등학교, 순천팔마고등학교) 지역의 유네스코학교를 방문해 국내 교육 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 교육청과 지역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국내 교사, 학생들과 만나 양국의 교육현안과 문화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결산하는 보고회와 폐회식은 30일 부산에서 진행됐다.

지난 2001년 한국 교직원들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15회째를 맞는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에서 이번 일본 교직원 방문단을 포함해 그간 약 500여 명의 일본 교직원과 약 1770여 명의 한국 교직원이 참여했다.

유네스코뉴스 9월호 -711호-

일본교직원단, 경기교육청 방문...마을교육공동체 등 관심 고조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유네스코 한일교사 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 일본교직원단을 맞아 양국 교육 현안과 혁신교육에 대해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한국 교사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양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정책 방향 대화가 목적이다.

도교육청을 방문한 일본 교원들은 교육적 현안이 비슷한 만큼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혁신교육의 성과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음이 나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이석길 교육2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새로운 교육 틀 혁신교육을 공유하여 양국의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교육 현안을 위한 한일 교원들의 대화 창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5.08.27, 뉴시스, 김경호 기자

2015 유네스코 한·일 교사대화 일본교직원, 전남도교육청 방문

"한·일 교육현안 공유와 상호 국가이해의 폭 넓혀"



2015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본교직원 한국방문단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을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유네스코 학교 담당자들이 상호 방문,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공유하고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원한다.

유네스코학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표방하는 평화, 인권, 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의 이념을 학교현장에서 실현하는 학교로서 전남교육청은 2015년 현재 초 7교, 중 4교, 고 14교 등 총 25개교가 지정돼 있다.

스노하라 아키오(나가노현교육청 교학지도과장)단장을 중심으로 장학관, 장학사,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및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일본방문단은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무지개학교, 독서토론 열차학교, 선상무지개학교 및 국제교육협력 활동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 두 기관간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이어 교육연구정보원을 방문해 한국의 발전된 ICT 교육 등을 살펴본 후, 순천왕지초와 순천팔마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전남도교육감환영 만찬회에 참석해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한·일 교사들이 준비한 문화공연을 함께하며 소중한 문화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이와함께 송광사 및 순천만정원을 탐방하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이해,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환경생태보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밖에 한국교사와 1:1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동주 교육진흥과장은 “한·일 교사들이 상호 방문해 교육현안 및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한국교직원 일본방문 활동은 내년 2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2015.08.30,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일본 교직원 25명 순천서 교류활동

이틀간 팔마고서 열린 유네스코 프로그램 참여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의 한국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 교직원 25명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순천팔마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는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후원하고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주관하며 한일 교직원 간 교류를 통해 양국의 교육현황을 이해하며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이해교육(EIU) 등 유네스코의 교육 이념 확산을 위해 진행돼 왔다.

유네스코 네트워크인 팔마고에 방문한 교직원 25명은 학교견학과 함께 현황 및 유네스코 활동을 소개받고 학생과 함께 문화탐방, 한국 가정 방문 활동 등을 가졌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일본 교직원은 일본 고등학생들의 교과와 일본의 입시제도, 일본 유네스코 학교 현황, 지속발전가능교육 등 일본교육을 소개했다.

이들은 팔마고 학생 30여명과 순천만 정원과 송광사를 방문해 한일 양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팔마고 학생의 가정에 일본 교직원 2명씩 초청받아 우리나라의 정과 포근함을 느꼈다.

허순행 교장은 “유네스코 학교 가입 승인이 결정되고 바로 큰 행사를 맡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순천팔마고등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순천팔마고등학교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유네스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는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학생,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자”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양국 교사 교류는 200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2015.09.01, 무등일보, 김학선 기자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회 참가 학생 및 교사 후기

현해탄 건너온 우정, 미래 위한 다리가 되다

한일 교직원 간 교류를 통해 양국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이해교육(EIU) 등 유네스코의 교육 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회'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유네스코학교 등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방한한 일본 교직원단 50명은 서울, 경기, 전남 지역의 유네스코학교 6곳을 방문, 교직원 및 학생들과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가졌다. 일본 교사들과 만난 국내 학생과 처음으로 한국의 생생한 교육 현장을 견학한 일본 교사의 참가 후기를 소개한다.



“일본 선생님들과의 만남 통해 선입견 깬 소중한 시간”



팔마고등학교가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된 후 첫 해외교류 행사로 일본 유네스코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펼친 유네스코 활동 결과물을 전시한 유네스코 역사관을 정리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8월 28일, 일본 선생님들은 환영회, 학교 수업 참관, 한국 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하며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담회를 통해 평소 궁금해했던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아갔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이야기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방문 이틀날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일본 선생님들을 순천만정원박물관회장으로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선생님들과 조를 짜 순천만정원을 관람하기로 해, 저를 포함한 학생 3명과 일본인 선생님 두 분이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때로는 어설픈 일본어로, 때로는 영어로 성심성의껏 다양한 정원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의 부족한 설명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일본 정원이 꾸며진 곳에서는 직접 일본 정원의 소박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나 지역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장 관람 후 우리 일행은 조계산에 있는 송광사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은 송광사의 고즈넉한 정취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송광사 대웅전에서 절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는

데, 우리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일본 선생님들의 모습이 이색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웅전 앞에서 앞으로의 영원한 우정을 기념하는 단체 사진을 찍고, 순천으로 돌아와 일본 선생님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짧았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을 돌아보는 한편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단체 일정은 점심시간까지였지만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의 학생들은 일본 선생님들을 각자의 가정으로 초대해 우리 문화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저녁 식사 전까지 우리는 순천 시내를 둘러보고, 선생님들은 “한국에 몇 번 와 보았지만 이처럼 한국 곳곳을 둘러보는 건 처음”이라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가정식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 아버지는 소주 반주까지 곁들여 일본 선생님들과 시간을 함께하셨습니다. 일본 선생님들 역시 사케를 가장 방문에 대한 감사 선물로 주셨고 우리 가족은 흥삼을 담례선물로 드리며 짧아서 아쉬웠던 가정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파트너일까요? 지금까지는 여러 선입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한일교사대회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역시 함께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이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른 나라와 상호 교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자 분들과 순천팔마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권한철 (순천팔마고등학교 2학년)



“한국서 느끼고 배운 것,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



‘백문이 불여일견.’ 이번 프로그램 기간 중 그룹 리더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이 말을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되고 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교육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도 했지만, 역시 한국인들과 직접 교류하고 교육 현장을 방문하며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지식 이상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중에 찾은 안현초등학교는 교육 현장을 학부모가 참여해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풍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학교 견학 때 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에서도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역시 학교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지역이 연계해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목표와 현황 정보를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원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도 대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학생들에게 장애 희망을 물어보았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경기자자동차학교등

학교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가능하진 않을까요?

이곳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도교육청에서 들은 ‘자유학기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시간을 갖고 생각하는 한편, 배우는 의의를 스스로 깨달으면서 주체적인 학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글로 습득한 지식을 통해서만 접했던 이웃 나라 한국이, 이곳에서 만난 분들에게서 받은 상냥하고 따뜻한 환대를 통해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적 거리도 가까운 나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을 만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올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평생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국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캄사함니다! (감사합니다!) ■

마키타 마사에 (다마시립 아이와초등학교 교사)

유네스코 한일교사대화

2015 일본교직원 한국방문 프로그램

2015 Invitation Programme for Japanese Teachers

퍼낸날 | 2015년 10월 23일

퍼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낸이 | 민동석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문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전화 | 02-6958-4123

팩스 | 02-6958-4252

전자우편 | unescoteacher@unesco.or.kr

한위간행물등록번호 ED/2015/RP/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